‘단칼’ 이재명, 윤석열 잡고 단숨에 3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차기주자 판도마저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선 ‘코로나19’에 초강력 대처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단숨에 따라 잡고 3위 자리를 꿰찼다.

◇ 신천지 강제조사 지시 이재명, 윤석열 제치고 단숨에 차기 3위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4~25일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6.2%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27.4%)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11.4%)에 이어 7.8%로 3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판단, 지난 25일 “제2의 대구 사태 막기 위해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해 긴급 강제조사에 들어 갈 것”을 지시해 방역과 함께 신도 명단 확보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사이다 조치’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4.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0%), 오세훈 전 서울시장(2.6%),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2.3%),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2.2%) 등의 순으로 이 지사 뒤를 이었다.

한편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태도유보층도 31.4%에 달했다.

◇ 2주전 이재명, 이낙연-황교안-윤석열에 이어 안철수와 공동 4위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전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에게도 밀려 5위에 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1001명을 상대로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조)에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25%),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10%)가 1,2위를 형성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5%)이 3위에 자리했다.

이에 대해 권력에 대해 거침없는 수사를 펼친 윤 총장에 대해 보수층 등이 높은 평가를 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에 이어 안철수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상 3%),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2%),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상 1%) 순으로 나타났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47%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2주만에 순위가 바뀐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윤석열 총장 이름이 오르내릴 기회가 크게 없었던 반면 이재명 지사는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이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코로나19가 바꾼 본회의장 풍경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쓴 의원들이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홍익표 ‘대구 · 경북 봉쇄’ 발언에 사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당 지도부에 전날(25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대구 · 경북 봉쇄 조치’ 발언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펴야함에도 대구 · 경북의 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의 불안감도 덜어드리지 못했다”며 “이에 사과드리며, 책임을 지고 수석대변인에서 물러납니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신과 비난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으로 보듬으며 함께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전날 브리핑에 대해 “절대로 어제의 표현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조기 코로나19 차단이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어쨌든 신중하지 않은 표현, 또 오해가 있는 표현을 통해 혼란을 드리고 불안감을 드린 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이준석 “이만희가 ‘새누리당’ 이름? 그럼 이만희도 믿어야” 펄쩍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6일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이름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했다는 설에 대해 “(그런 소문을 믿는다면) ‘이만희가 메시아다’라는 말도 믿어야 한다”고 펄쩍 뛰면서 부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가 관련 소문에 대해 확인을 부탁하자 “제가 비대위원으로서 새누리당 당명 결정하는 회의에 있어 잘 아는데 국민 공모로 들어와서 열 분을 시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공모했던 사람이 혹시 신천지 신도거나 관련자, 이만희 교주 아닌지”라고 궁금해 하자 이 최고위원은 “이만희씨로 들어온 건 없다”면서 “저희가 중국어 당명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이 순 한글 당명이니까 ‘신국가당’, ‘신세계당’, ‘신천지당’ 등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문 대통령 “정은경 힘내라”에 정청래 “안철수 힘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를 펼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힘을 내시라”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진 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힘내세요”라고 응원,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과 정 전 의원은 똑같이 “힘내라”고 외쳤지만 그 말속에 담긴 뜻은 정반대였다.

◇ 문 대통령 “정은경 본부장 체력이 걱정된다, 힘 내시라”

이날 청와대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회의 자리에서 정 본부장을 언급하며 ‘좀 허탈하지 않을까, 보통 이런 상황이면 맥이 빠지는데, 체력은 어떤지’라며 ‘어쨌든 계속 힘냈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틈이 날 때마다 정 본부장과 질본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지난 20일에는 “이렇게 잘 대응해 온 게 질병관리본부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새로운 양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새로운 과제가 된 상황이지만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 질본 관계자들에게도 격려말씀 전해달라”고 했다.

또 지난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 고려인삼 가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직원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보내려 한다”며 홍삼액 제품 30박스를 구매,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달 26일엔 정 본부장과 전화통화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과도한 업무상황에 놓인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한 바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있는 정은경 본부장 등 질본 직원들은 한달 이상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피로도가 한계점을 넘었다. 이 때문인지 정 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기력이 빠진, 지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 정청래 “이 사람, 저 사람 떠나니 힘들지요, 안철수”…격려 아닌 그 무엇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대표가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과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안철수님, 이사람 저사람 떠나고 있고…힘들지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정치는 마라톤과 다르다”며 “마라톤이야 혼자 이를 악물고 뛰면 가능도 하지만 정치는 혼자 이를 악물고 뛴다고 되는게 아니니, 이를 악물고 뛰다가 이만 상할 수 있다”고 안 대표 건강까지 살뜰하게 챙겼다.

정 전 의원은 “아무튼 힘내세요”라는 말로 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안 대표 아픈 구석(고립무원)을 찔렀다.

안 대표는 중도정치를 표방하면서 국민의당을 출범시켰지만 옛 바른미래당 시절 안철수계였던 김중로, 이동섭, 장환진 의원이 국민의당이 아닌 통합당으로 옮기는 등 측근들의 이탈로 생각만큼 기세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에 남아 있는 안철수계 현역 의원은 권은희 · 김수민 · 김삼화 · 신용현 · 이태규 의원 등 5명이지만 이들 중 몇 몇 의원들도 안 대표 곁을 떠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안 대표 심경이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